

임상실습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이 간호학생의 첫 임상실습에 대한 불안,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이 속 희¹⁾

서 론

연구의 필요성

간호학생은 임상교육과정을 통하여 임상상황에서 적절한 지식, 판단, 기술을 보여주고 유능하게 기능할 수 있는 임상수행능력(Barret & Myrick, 1998)을 갖추어야하며, 건강수준의 향상과 만성질환 및 노인인구 증가 등의 급격한 의료 환경의 변화로 문제해결 능력을 가진 숙련된 전문 의료인으로서의 자질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Han et al., 2006).

간호교육은 간호학생이 이론적 지식과 이에 따른 실습교육을 받고 졸업 후 사회에서 전문직 간호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간호지식을 실무에서 통합하고 적용하여 대상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임상간호교육이 필수적이다(Lee, Ha, & Kil, 2000). 간호교육에 있어서 임상실습은 간호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강의실에서 습득한 이론을 간호현장에 적용하도록 함으로서 학생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창의력을 길러주는 학습과정(Kim, Nam, & Kim, 2004)으로 이론 강의 및 교내실습과 함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간호학생이 임상실습에 갖는 태도나 만족도는 매우 부정적으로 불안, 긴장, 스트레스, 피로 등이 나타났다(Park, 2001). 특히 첫 임상실습인 경우 낮은 병원환경에 적응해야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이 두려움과 불안을 경험하고 있으므로(Kleehammer, Hart, & Keck, 1990; Moon, 1998; Park, 1997), 간호학생의 불안을 감소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여 간호학생의 임상실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이 매우 중

요하다고 생각한다.

간호학생의 임상실습과 관련된 선행 연구의 경우 임상실습 스트레스, 불안 및 피로연구(Park, Kim, Kim, Kim, & Park, 2005), 임상실습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자아존중감과 관계연구(Kim & Lee, 2005; Park, 2004), 임상실습 시 간호학생이 지각하는 힘 돋우기와 실습 만족도에 관한 연구(Han, 2000; Kim & Oh, 2000; Yang, 2000),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및 자아존중감과 관계연구(Kim & Lee, 2005; Whang, 2006)등 심리 정서적인 문제와 실습태도를 확인한 연구가 많았고, 임상실습 적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간호학생에게 호흡바이오 피드백 훈련, 발마사지 및 아로마테라피요법(Kang & Kim, 2002; Kwon & Kim, 1999; Won et al., 2000)등을 적용한 연구들이 있었을 뿐 첫 임상실습 전 효율적인 임상실습에 관한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실습교육을 한 후 그 효과를 다룬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임상실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관련요인을 보면 간호과 1학년 학생의 첫 임상실습에서 지식과 기술 부족, 병원 환경에 대한 두려움과 생소함, 간호사와의 의사소통 등의 불안이 높게 나타났으며(Kleehammer et al., 1990; Moon, 1998; Park, 1997), 간호학생의 불안과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불안이 낮게 나타났다(An & Chung, 2006; Ham & Kim, 2001). 자아존중감은 행동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주며 긍정적인 가진 사람일수록 모든 일에 적극적이며 성취감이 높다고 하였으며(Jeon, 1974),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낮았다고 보고되었다(Kim &

주요어 : 임상실습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불안,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1) 기독교간호대학 교수(교신저자 E-mail: shee4930@hanmail.net)

접수일: 2008년 9월 20일 수정일: 2008년 11월 17일 게재확정일: 2008년 11월 17일

Lee, 2005; Whang, 2006). 그리고 Park, Bae와 Jung (2002)의 연구에서도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학업과 취업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습부진 간호 대학생에게 학습동기향상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학업에서의 자신감과 자아존중감이 향상되었으며(Lee, 2006), Park 등(2002)의 연구에서도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 상관관계가 있어 자아존중감이 증진될수록 자기효능감이 증진되었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첫 임상실습에서 경험하는 불안을 감소시켜주고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을 증진시켜주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효율적인 임상실습의 전략으로서 필요하다. 본 연구자는 사전 임상실습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처음 임상실습을 경험하는 간호학생의 불안,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이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 임상실습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를 시도하였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간호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불안,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 정도를 파악한다.
-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이 간호학생의 불안,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 간호학생의 불안,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규명한다.

용어의 정의

●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2학년 1학기 임상실습을 시작하기 전 1학년 과정을 이수한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기간에 7-8명씩 그룹으로 편성하여 전임교수 9인과 프리셉터 10명이 임상병동에 상주하면서 5일, 4시간씩 실습 지도한 프로그램을 말한다. 실습내용은 병원과 병동의 전반적인 소개, 기본적인 대인관계 형성과정, 대상자에게 간호과정 적용사례 실습, 간호활동의 관찰 및 수행, 기본적인 윤리문제 토의, 환자 기록지 파악 등 기본간호학 실습내용을 중심으로 계획한 프로그램을 말한다.

● 불안

불안이란 실제적 또는 상상적으로 위협적인 상황에 직면할 때 주관적이고 의식적으로 느끼는 지각된 감정을 의미하며, 긴장이나 염려, 고조된 자율신경계의 활동 등이 시간적 경과에 따라 변화를 보이는 정서 상태를 말한다(Spielberger,

1972), 본 연구에서는 Kim과 Shin (1978)이 번역한 것 중 상태불안도구로 측정된 점수다.

●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가치 있는 인간으로 인지하는 것을 의미하며(Rosenberg, 1965), 본 연구에서는 Jeon (1974)이 번역한 자아존중감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이란 자신이 바람직한 결과를 얻는데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을 말하며(Bandura, 1986), 본 연구에서는 Lee (1994)가 사용한 일반적 자기효능감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 1년을 이수한 학생에게 2학년 초 임상실습을 시작하기 전 1주간 매일 4시간씩 전임교수와 프리셉터 지도하에 임상실습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간호학생의 불안,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단일군 전·후 설계를 이용한 원시실험 연구이다.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G시에 소재한 1개 간호대학(3년제), 1학년 과정을 이수한 학생에서 연구목적과 취지, 작성요령을 설명한 후 구두로 동의한 학생 13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에게 2008년 2월 11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료부서, 간호과 소개 및 인사, 병원의 연혁 및 규칙 등 실습병원의 전반적인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사전 임상실습의 중요성과 연구 프로그램의 목적을 설명한 후 설문지를 이용하여 사전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2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임상실습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계획표에 따라 실습을 실시하고 실습 마지막 날 실습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시행하면서 프로그램 전과 동일한 설문지를 이용하여 사후 자료 수집을 하였다. 휴학, 결혼, 군 입대 등으로 6명이 불참하여 최종 대상자는 127명으로 연구 대상자 탈락율은 4.5%였다.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도구는 다음과 같다

● 임상실습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 임상실습 워크샵

프로그램 전 9명의 전임교수와 10명의 프리셉터가 실습내용과 평가를 중심으로 1일 워크샵을 시행하여 실습지도의 일관성을 도모했다.

• 내용 - 프리셉터의 역할 및 실습평가방법

- 대상자와의 대인관계 형성방법과 치료적인 의사소통기술
- 윤리집담회에 필요한 기본윤리원칙(의무론과 공이론, 생명윤리 등)
- 간호과정의 개요 및 적용사례
- 기본간호활동 등

• 오리엔테이션 실습내용

- 목적 - 인간의 기본요구를 이해하여, 간호과정(사정, 진단, 계획, 수행, 평가)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기초로 간호요구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간호기술을 실습한다.
- 목표 - 인간의 기본요구를 이해한다.
 - 인간의 기본요구를 간호과정에 의해 사정 및 진단을 내리며, 이에 따른 계획, 수행, 평가를 할 수 있다.
 - 인간의 기본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간호기술을 행할 수 있다.
 - 그 외에 간호에 필요한 간호기술을 행할 수 있다.
- 실습내용(하단 표)

● 불안 측정도구

Spielberger (1972)의 상태불안과 기질불안 척도 중 Kim과 Shin (1978)이 번역한 4점 척도 20문항의 상태불안척도를 사

용하였다. 점수는 대단히 그렇다 4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부정적인 문항은 점수를 역으로 환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Kim과 Shin (1978)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0.8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값은 0.79이었다.

● 자아존중감 측정도구

Rosenberg (1965)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측정도구를 Jeon (1974)이 번안 수정한 4점 척도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는 항상 그렇다 4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1점으로 부정적인 문항은 점수를 역으로 환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Jeon (1974)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0.85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값은 0.77이었다.

● 자기효능감 측정도구

Lee (1994)가 사용한 일반적 자기효능감 측정도구로 5점 척도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는 확실히 그렇다 5점, 확실히 아니다 1점으로 부정적인 문항은 점수를 역으로 환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Lee (1994)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값은 0.77이었고, Cronbach's α 값은 본 연구에서도 0.87이었다.

연구의 제한점

연구대상이 일개 대학의 간호학생들에 국한된 중재연구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타 대학의 학사와 실습계획이 동일하지 않아 대조군을 선정하여 비교 연구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일(시간)	내	용
제1일 (4시간)	전반적 소개	병동에 대한 소개(물품 및 병실배치, 일반적 주의사항) 실습에 대한 소개(목적, 활동, 평가, 일지 쓰는 법)
	대인관계형성	배당된 병실의 환자 소개 및 대상자와 기본적인 대인관계 형성 간호 팀과 기본적인 대인관계 형성
	간호과정(사정)	대상자의 건강문제와 관련된 주관적(건강력), 객관적(관찰, 증상, 검사결과, 참고문헌) 자료수집 대상자의 건강문제에 관련된 간호를 스스로 연구
제2일-제4일 (12시간)	기록지 관찰	환자기록지, Kardex 보는 법
	간호과정 (진단, 목적, 계획)	대상자의 건강문제와 관련해 수집한 자료를 기초로 우선순위에 따라 간호진단을 내리고 목적, 계획을 세워 지도를 받음
	간호활동의 관찰 및 실습	담당교수의 지도아래 간호를 실습(활력증상, 경구투약, 근육주사, 정맥주입준비, 자가간호 활동돕기, 영양, 운동 및 휴식, 배설 등)하고 수행한 간호를 기본간호 활동표에 표시하여 확인받음 병실에서 실시되는 간호활동, 특수치료 및 검사를 관찰
제5일 (4시간)	대인관계분석	대상자와의 관계를 치료적 대인관계술법의 기준으로 분석하여 지도를 받음
	윤리 집담회 평가	윤리 집담회에 참여하고 제시된 문제들에 대해 토의 및 평가 실습한 내용(간호과정, 대인관계, 실습평가기준에 의한 자가평가)에 대해 교수의 지도를 받고 제출
총	5일간(20시간) : 그룹별로 오전과 오후에 나누어서 실습함. 오전 : 8시 - 12시, 오후 : 1시30 - 5시 30분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처리 하였다.

-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빈도 및 백분율을 구하였다.
-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구하였다.
- 대상자의 불안,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 정도는 사전, 사후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상자의 불안,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임상실습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효과는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불안,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19세 미만이 97명(76.3%), 20세 이상이 30명(23.7%)으로 평균 20.9세이었으며, 여학생 117명(92.1%), 남학생 10명(7.9%)이었다. 96명(75.6%)이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답하였으며, 경제수준은 중이상이 104명(81.9%)이었고, 건강상태에서는 양호하다 100명(78.7%), 보통이다 27명(21.3%)이었다. 학업성적은 평점 3.5점 이상인 학생이 57명(44.9%), 3.0~3.4점인 학생 51명(40.2%), 2.9점 미만인 학생은 19명(14.9%)이었다. 간호학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83명(65.4%)이 만족한다, 44명(34.6%)이 보통이라고 답하였으며, 그 중 기본간호학 강의와 실습은 93명(73.2%), 99명(77.9%)에서 만족한다고 했다. 본인이 생각하는 자신의 성격에서는 29명(22.9%)이 내성적, 중간형이 66명(52.0%), 32명(25.1%)이 외향적이라고 답하였다. 그리고 간호학을 선택한 동기는 취업 60명(47.2%)과 적성 때문이라는 응답이 22명(17.3%)으로 가장 높았다.

연구 결과

대상자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불안,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 정도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ents

(N=127)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Frequency	Percent
Age (years)	19 below	97	76.3
	20 above	30	23.7
Gender	Female	117	92.1
	Male	10	7.9
Religion	Yes	96	75.6
	No	31	24.4
Economic status	Middle	104	81.9
	Low	23	18.1
Health status	Good	100	78.7
	Moderate	27	21.3
School record	3.5 or above	57	44.9
	3.0~3.4	51	40.2
	2.9 or below	19	14.9
Satisfaction with nursing as a major	Satisfied	83	65.4
	Moderate	44	34.6
Satisfaction with fundamental nursing (lecture)	Satisfied	93	73.2
	Moderate	34	26.8
Satisfaction with fundamental nursing (practice)	Satisfied	99	77.9
	Moderate	28	22.1
Personality	Introvert	29	22.9
	Moderate	66	52.0
	Extrovert	32	25.1
Motivation for admission to nursing	Job	60	47.2
	Interest	22	17.3
	Grade	13	10.3
	Advice of other	15	11.8
	Mission	9	7.1
	Other	8	6.3

Table 2. Anxiety, Self-Esteem, Self-Efficac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27)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Anxiety	t or F (p)	Self-esteem	t or F (p)	Self-efficacy	t or F(p)
		Mean±SD		Mean±SD		Mean±SD	
Age (years)	19 below	52.58±7.58	-1.632(.11)	29.88±3.91	1.719(.09)	59.49±9.07	-.645(.52)
	20 above	55.30±8.06		28.33±4.44		60.63±8.25	
Gender	Female	53.17±7.79	-.290(.77)	29.50±4.15	-1.179(.86)	59.89±8.80	.520(.61)
	Male	53.90±7.60		29.70±3.23		58.20±9.99	
Religion	Yes	53.85±7.33	1.470(.14)	29.86±4.05	1.689(.09)	60.60±8.15	1.668(.10)
	No	51.29±8.76		28.45±4.04		57.16±10.51	
Economic status	Middle	53.65±7.35	1.138(.26)	29.97±3.67	2.190(.03)	60.19±8.87	1.166(.25)
	Low	51.30±9.28		27.47±5.17		57.82±8.79	
Health status	Good	53.69±7.49	1.197(.23)	29.71±4.06	1.001(.32)	59.53±8.77	-.550(.58)
	Moderate	51.51±8.58		28.81±4.14		60.62±9.32	
School record	3.5 or above	54.01±7.58	.552(.57)	30.17±3.95	2.315(.10)	60.65±7.92	4.373(.01)
	3.0~3.4	52.47±7.97		29.39±3.68		60.54±8.41	
	2.9 or below	52.89±7.86		27.89±5.10		54.36±11.03	
Satisfaction with nursing as a major	Satisfied	54.39±7.76	2.419(.01)	30.46±3.47	3.496(.001)	61.84±8.08	3.691(.000)
	Moderate	51.02±7.33		27.72±4.54		55.84±9.03	
Satisfaction with fundamental nursing (lecture)	Satisfied	53.84±7.73	1.505(.13)	30.08±3.51	2.243(.03)	60.77±8.78	2.174(.03)
	Moderate	51.52±7.67		27.97±5.07		57.00±8.61	
Satisfaction with fundamental nursing (practice)	Satisfied	53.83±7.90	1.811(.07)	30.06±3.67	2.467(.01)	60.60±8.69	1.999(.04)
	Moderate	51.07±6.90		27.60±4.88		56.78±8.99	
Personality	Introvert	51.06±7.36	2.530(.000)	27.96±5.10	4.243(.001)	57.00±7.29	5.179(.001)
	Moderate	53.09±8.33		29.51±3.84		59.04±9.80	
	Extrovert	55.46±6.33		30.93±2.95		63.75±6.74	

* p < .05 ** p < .01 *** p < .00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불안,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 정도는 Table 2와 같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불안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간호학 전공에 대해 만족한 학생이 만족하지 않는 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불안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t=2.419, p=.01), 본인이 생각하는 자신의 성격이 외향적인 학생일수록 불안정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F=2.530, p=.000). 자아존중감은 경제수준이 중이상인 대상자가 경제수준이 낮은 대상자보다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t=2.190, p=.03), 간호학 전공(t=3.496, p=.001), 기본간호학 강의(t=2.243, p=.03)와 실습(t=2.467, p=.01)에서 만족한 학생이 자아존중감정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자신의 성격이 외향적인 학생일수록 자아존중감정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F=4.243, p=.01). 자기효능감은 학업 성적에서 평점이 높은 학생이 낮은 학생보다 자기효능감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F=4.373, p=.01). 그리고 간호학 전공 (t=3.691, p=.000), 기본간호학 강의(t=2.174, p=.03)와 실습 (t=1.999, p=.04)에서 만족한 학생의 자기효능감정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본인이 생각하는 자신의 성격이 외향적인 학생일수록 자기효능감정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F=5.179, p=.001).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이 대상자의 불안,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프로그램 중재 전과 후의 대상자의 불안,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불안은 프로그램 전 평균점수가 53.22±7.75점에서 프로그램 후 63.12±18.38점으로 증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12.424, p=.000). 자아존중감은 프로그램 전 평균 29.51±4.08점에서 프로그램 후 31.80±3.47점으로 증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t=-8.460, p=.000), 자기효능감은 프로그램 전 평균점수가 59.76±8.86점에서 프로그램 후 65.63±8.84점으로 증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12.029, p=.000).

Table 3. Effect of Orientation Program for Clinical Practice on Anxiety, Self-Esteem and Self-Efficacy (N=127)

	Pretest	Posttest	t	p
	Mean±SD	Mean±SD		
Anxiety	53.22±7.75	63.12±18.38	-12.424	.000
Self-esteem	29.51±4.08	31.80± 3.47	-8.460	.000
Self-efficacy	59.76±8.86	65.63± 8.84	-12.029	.000

대상자의 불안,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과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불안,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의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다.

불안과 자아존중감정도($r=.525$)와 자기효능감정도($r=.440$)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자아존중감도와 자기효능감정도($r=.628$, $p=.000$)도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세 변수 모두 관련성이 높게 나타났다.

Table 4. Correlation among Anxiety, Self-Esteem, Self-Efficacy (N=127)

	Anxiety	Self-esteem
Self-esteem	.525(.000)	
Self-efficacy	.440(.000)	.628(.000)

논 의

본 연구는 처음 임상실습을 경험하는 간호학생의 불안,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정도를 파악하고 사전 임상실습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실습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되었다.

대상자의 불안정도는 총 80점 중 평균 53.22 ± 7.75 점으로 Park 등(2005)의 일 간호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 불안 및 피로조사 연구에서의 불안정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2학년보다 처음 임상실습 나간 1학년 학생의 불안이 높으리라고 생각된다. 또한 간호과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첫 임상실습 경험 분석한 연구(Moon, 1998)에서 학생들은 지식과 기술 부족, 병원환경에 대한 두려움이나 생소함으로 인한 부담감, 환자에게 처음 다가갈 때, 간호사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의 경험 이 있다고 호소했으며 자신의 역할이 애매모호할 때, 교수에게 평가를 받을 때, 처음 임상실습 시 실수에 대한 두려움과 임상지도교수들의 평가와 관찰 그리고 지원을 받지 않는다고 인지될 때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높다고 서술한 연구들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된다(Kleehammer et al., 1990; Park, 1997; Park, 2004). 간호학 전공에 만족한 학생이 만족하지 않는 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불안정도가 높게 나타난 결과는 Park 등(2005)과 Yang (2000)의 연구 결과와 비슷하며 잘하고자 하는 의욕과 열심이 불안과 스트레스를 높였으며 간호학 전공에 대한 기대감이 효과적인 임상실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결과로 생각된다.

간호학생의 자아존중감은 총 40점 중 평균 29.51 ± 4.08 점으로 나타나 1, 2학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An과 Chung (2006)의 결과보다는 높게 3, 4학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Whang (2006)의 결과보다 낮게 나타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전공과목의 이수확률이 많아지고 자아존중감이 향상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사료된다. 간호학 전공과 기본간호학 강의와 실습에서 만족한 학생이 자아존중감정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결과는

Kim과 Lee (2005)의 연구와 일치되는 결과이며 자아존중감이 증진되면 간호학 학습과 실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자기효능감은 총 85점 중 59.76 ± 8.86 점으로 나타났으며 간호학 전공과 기본간호학 강의와 실습에서 만족한 학생의 자기효능감정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Whang (2006)의 연구결과와 일치했다. 그리고 기본간호수기 수행능력에서도 자기효능감이 높은 설명력을 나타냈는데(Park & Lee, 2008) 이는 자신이 바람직한 결과를 얻는데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기효능감, 즉 자신감(Bandura, 1986)이 간호학 전공 만족도와 기본간호 수행능력을 증진 시켰다고 사료된다. 또한 자신의 행동에 의해 얻어진 임상성취경험, 훌륭한 임상지도자 모델이 수행한 행동관찰, 타인의 언어적 설득에 의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효능감이 증진되면(Bandura, 1986) 간호학생의 자기효능감도 증진되어 임상실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학업성적에서도 평점이 높은 학생의 자기효능감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결과는 Park 등(2002)의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높은 군이 학업과 취업 스트레스가 낮고 대학생회에 만족한다는 결과와 일치하게 나타났다.

프로그램 중재 전과 후의 대상자의 불안,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한 결과 불안은 프로그램 전보다 프로그램 후 불안정도가 유의하게 증가되었는데 Kang과 Kim (2002)의 연구 결과 첫 임상실습을 경험하는 간호학생의 불안이 아로마테라피를 받은 군이 받지 않는 군보다 유의하게 불안점수가 낮게 나타난 것과 일치하지는 않았다. 이는 첫 임상실습으로 기대되었던 상황보다 낫선 병원환경, 환자와의 대인관계 및 부담감 등이 불안을 더욱 가중 시킨 결과로 사료된다. Ko와 Kim (1994)의 연구에서도 간호현장에서 부딪히는 간호지식과 기술에 대한 내용은 실습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충분히 할 필요성을 언급한바 있는데, 특히 처음 임상실습 시에는 교수와 프리셉터의 참여로 충분한 기간과 상담체계를 갖추고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실습 지도를 해야 됨을 암시해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은 프로그램 전 보다 프로그램 후 유의하게 증가되었는데 이는 학습부진 간호대학생에게 학습동기향상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학업에서의 자신감과 자아존중감이 향상되었다는 Lee (2006)의 연구결과와 일치되는 현상으로서 학습과 실습 시 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은 학업성취도에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특히 프리셉터의 지도가 학생의 임상실습의 스트레스를 유의하게 낮게 해준 연구결과(Whang, 2006)를 비춰 볼 때 이 프로그램에서 프리셉터의 지도는 간호학생의 임상실습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 바람직한 방법으로 생각된다.

대상자의 불안,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의 상관관계에서는

불안,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정도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세 변수 모두 관련성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는 Whang (2006)의 연구결과와 일치했다. 그러나 불안이 높아지는 원인에 대해서는 더욱 연구하여 원인파악과 그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임상실습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간호학생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것은 실습 전 자신의 중요한 역할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효율적인 임상실습에 대한 기대감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사료되며 추후 보안을 통해 계속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사전 실습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처음 임상실습을 경험하는 간호학성의 불안,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단일군 전·후 설계를 이용한 원시실험 연구이다.

연구기간은 2008년 2월 11일부터 16일까지였으며, G시에 소재한 1개 간호대학 1학년 과정을 이수한 학생 127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연구도구는 Kim과 Shin (1978)이 번역한 상태불안측정도구, Jeon (1974)의 자아존중감 측정도구와 Lee (1994)의 자기효능감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실습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전과 후에 설문지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Win 12.0 program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불안,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 등의 각 변수를 서술적 통계,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다. 임상실습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효과는 paired t-test로 분석하였으며 불안,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측정도구의 각 신뢰도 검증은 Cronbach's Alpha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 불안정도는 총 80점 중 평균 53.22±7.75점으로 나타났으며, 간호학 전공에 대해 만족한 학생이 만족하지 않는 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불안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성격이 외향적인 학생일수록 불안정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p=.000).
- 자아존중감 정도는 총 40점 중 평균 29.51±4.08점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수준이 높은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간호학 전공과 기본간호학 강의와 실습에서 만족한 학생이 자아존중감정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p=.001).
- 자기효능감 정도는 총 85점 중 59.76±8.86점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성적에서 평점이 높은 학생의 자기효능감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간호학 전공과 기본간호학 강의와 실습

에서 만족한 학생의 자기효능감정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1).

- 프로그램 중재 전과 후의 대상자의 불안,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한 결과 불안은 프로그램 평균점수가 53.22±7.75점에서 63.12±18.38점으로 반대로 증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자아존중감은 평균 29.51±4.08점에서 31.80±3.47점으로 증가하였고, 자기효능감은 평균점수가 59.76±8.86점에서 65.63±8.84점으로 증가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

이상의 연구결과를 간호학성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을 증진시켜 효율적인 임상실습을 위한 사전 실습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적용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 간호학성의 불안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규명과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
- 간호학성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으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 학사와 실습 계획이 비슷한 대학의 대조군을 두어 임상실습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의 불안,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의 효과를 비교하는 유사실험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An, H. J., & Chung, B. Y. (2006). Self-esteem and social anxiety of nursing student. *J Korean Acad Soc Nurs Edu*, 12(2), 224-228.
- Bandura, A. (1986). The Explanatory and Predictive Scope of Self-Efficacy Theory. *J Soc Clin Psychol*, 4(3), 359-373.
- Barrett, C., & Myrick, F. (1998). Job satisfaction in preceptorship and its effect on the clinical performance of the preceptee. *J Adv Nurs*, 27(2), 364-371.
- Han, S. J. (2000).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empowerment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Soc Nurs Edu*, 6(1), 132-146.
- Han, S. S., Koh, M. S., Kwon, S. B., Kim, M. S., Kim, Y. S., Kim, I. S., et al. (2006). *Advanced Nursing Management and Leadership*. Seoul: Koonja.
- Ham, Y. H., & Kim, S. N. (2001). The study of situational anxiety and self-esteem of nursing students in pre-clinical practice. *Kumgu Nonchong*, 8(1), 45-54.
- Jeon, B. J. (1974).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Yonsei Nonchong*, 11(1), 107-130.
- Kang, J. Y., & Kim, K. S. (2002). Effect of aromatherapy on anxiety and fatigue in students nurses experiencing their first clinical practice. *J Korean Acad Fundam Nurs*, 9(2), 226- 236.
- Kim, J. T., & Shin, T. K. (1978). A research on the Korean standardization of STAI. *The New Medical Journal*, 21(11),

- 69-75.
- Kim, E. H., & Oh, Y. H. (2000). An investigational stud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J Korean Acad Soc Nurs Edu*, 6(2), 186-198.
- Kim, M. A., Nam, S. H., & Kim, H. E. (2004). Changes in student nurses' perception between initial and final clinical practice. *J Korean Acad Fundam Nurs*, 11(1), 21-30.
- Kim, S. L., & Lee, J. E. (2005). Relationship among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self-esteem in nursing students taking clinical experience. *J Korean Acad Soc Nurs Edu*, 11(1), 98-106.
- Kleehammer, K., Hart, A. L., & Keck, J. F. (1990). Nursing students' perceptions of anxiety-producing situation in the clinical setting. *J Nurs Educ*, 29(4), 183-187.
- Ko, S. H., & Kim, K. M. (1994). A initial clinical experience nursing students. *The Korean Nurse*, 33(2), 59-71.
- Kwon, Y. S., & Kim, T. H. (1999). The effect of breathing biofeedback training in the stress of nursing students in clinical practice. *J Korean Acad Fundam Nurs*, 6(2), 169-184.
- Lee, K. E., Ha, N. S., & Kil, S. Y. (2000).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disclosure and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Nurs*, 30(3), 571-583.
- Lee, S. H. (2006). Effects of learning motive enhancing program on academic self efficacy, learning habits, and self-esteem in underachieve nursing college students. *J Korean Acad Soc Nurs Edu*, 12(1), 5-12.
- Lee, Y. W. (1994). *A study of the effect of an efficacy expectation promoting program on self-efficacy and self-car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Moon, M. S. (1998). Nursing students' initial clinical experience. *J Korean Acad Soc Nurs Edu*, 4(1), 15-27.
- Park, C. J. (1997). Nursing students anxiety level and perceptions of anxiety- producing situations in the clinical setting. *J Korean Acad Soc Nurs Edu*, 3, 34-45.
- Park, H. S., Bae, Y. J., & Jung, S. Y. (2002). A study of self-esteem, self-efficacy, coping methods, and the academic and job-seeking stress of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Psych Mental Health Nurs*, 11(4), 621-631.
- Park, I. S., Kim, C. S., Kim, R. Kim, Y. J., & Park, M. H. (2005). Stress, anxiety and fatigue of nursing students in clinical practice. *J Korean Acad Soc Nurs Edu*, 11(2), 151-160.
- Park, M. Y. (2001). Nursing students' stress and anger experience in the clinical setting. *J Korean Acad Soc Nurs Edu*, 7(1), 7-21.
- Park, M. Y. (2004). The perceived causal structure model on stress experienced by nursing students during clinical practice. *J Korean Acad Soc Nurs Edu*, 10(1), 54-63.
- Park, S. N., & Lee, S. K. (2008). Factors influencing basic nursing skil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J Korean Acad Fundam Nurs*, 15(1), 6-13.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pielberger, C. D. (1972). *Anxiety: Current trends in theory & research*. New York: Academic Press.
- Whang, S. J. (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stress, self-efficacy, and self-estee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 Korean Acad Soc Nurs Edu*, 12(2), 205-213.
- Won, J. S., Kim, K. S., Kim, K. H., Kim, W. O., Yu, J. H., Cho, H. S., et al. (2000). The effect of foot massage on stress in student nurse in clinical practice. *J Korean Acad Fundam Nurs*, 7(2), 192-207.
- Yang, J. J. (2000). A study of the influencing factors on assertiveness, clinical stress and nursing performance in nursing students. *The J of Kwangju Health College*, 20, 393-417.

Effect of Clinical Practice Orientation Program on Anxiety, Self-Esteem and Self-Efficacy in College Students in Nursing

Lee, Sook-Hee¹⁾

1) Professor, Christian College of Nursing

Purpose: This study is done to identify how a clinical practice orientation program would affect anxiety, self-esteem and self-efficacy in college students in nursing. **Method:** Data was collected from 127 nursing students in February, 2008.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the SPSS/Win 12.0 program, using t-test, ANOVA, paired t-test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Results:** The total mean scores were; anxiety 53.22/80, self-esteem 29.51/40 and self-efficacy in 59.76/85. Self-esteem and self-efficacy level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the level of Fundamentals practice and satisfaction with nursing as a major satisfaction(p=.001). The effect of the orientation program on clinical practice were a significantly increased in self-esteem and self-efficacy (p=.000). But in terms of anxiety, the effect was the opposite. So study to identify other factors causing anxiety

and strategies to reduce the anxiety need to be considered. **Conclusion:** It is important to improve self-esteem and self-efficacy and the study results indicate that an orientation program is one strategy that needs to be developed to meet these needs for college students in nursing.

Key words : Orientation, Clinical Competence, Anxiety, Self Esteem, Self Efficacy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Lee, Sook Hee.*
Christian College of Nursing
67 yangrimdong, Namgu, Gwangju 503-711, Korea
Tel: 82-62-675-8150 C.P.: 82-11-643-8487 Fax: 82-62-675-5806 E-mail: shee4930@hanmail.net